

# “내 색깔 접고 승리에 초점”

# “와일드카드 적임 누구나”

최종예선 앞둔 최강희 월드컵 대표팀 감독의 각오

최강희 월드컵 축구 대표팀 감독이 자신이 지향하는 축구를 자체하고 승리에 초점을 두겠다는 선수단 운영 방침을 밝혔다.

최 감독은 5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3차 예선 탈락의 고비를 넘긴 현재 지향점이 생겼느냐는 물음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지금 대표팀은 어떤 방향을 제시하거나 색깔을 내기보다는 절대적으로 이기는 경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을 앞둔 현재도 굽박하기는 마찬가지라 큰 그림을 그릴 여유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이 이어졌다.

최 감독은 “대표팀 감독은 한 경기의 결과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된다”며 “결국에는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수단을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군단의 사령탑으로서 목표가 수세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감독은 “현재는 무리하게 너무 먼 곳을 바라볼 저지가 아니다”며 “최종예선은 매 경기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결승전의 연속”

이라고 말했다.

최 감독은 “상대에 따라 전술적 대응법이나 훈련법을 달리하는 방안과 선수 구성에 변화를 주는 방법 등으로 최종예선을 치러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찌감치 비전을 제시하거나 체질 개선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최 감독은 “너무 먼 곳을 보면 경기력에 문제 가을 수 있다”며 “한 경기 한 경기에 승부를 거는 부분이 고민스럽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중에 다른 지도자가 대표팀의 지휘봉을 맡게 되면 4년 동안 임기를 보장해 끊임없이 비전을 갖고 색깔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감독은 최종예선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뽑을 때 정신력을 별도로 평가하겠다는 방침도 시사했다.

최 감독은 “중요한 경기에서는 조그만 실수나 집중력 싸움에서 승부가 갈린다”며 선수를 선발 할 때부터 이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예선 조 추첨은 오는 9일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최강희 축구대표팀 감독(왼쪽)과 흥명보 올림픽축구대표팀 감독이 5일 서울 프리자호텔에서 열린 오찬행사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런던행 확정 흥명보 올림픽 대표팀 감독의 고민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런던 올림픽 본선에 진출했으나 선수 선발을 둘러싼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

올림픽 축구에서는 23세가 넘는 선수들의 출전을 3명까지 허용하는 와일드카드 제도가 있다.

성인 대표팀에서 에이스로 활약하는 선수를 불러 취약 포지션에 배치하면 전력을 바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한국 올림픽 대표팀은 역대 올림픽에서 와일드카드를 활용해 재미를 본 적이 거의 없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

흥명보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5일 기자회견에서 “와일드카드의 명암을 봐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에 있다.

한국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흥명보 현 감독이 중앙 수비수로 나설 계획이었으나 대회 직전에 다치는 바람에 수비라인 전체가 흔들리고 말았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는 와일드카드로 낙점된 박지성과 송종국이 소속 클럽의 반대로 합류하지 못해 선수 운용에 차질이 빚어졌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와일드카드를

2장만 사용해 그라운드에서 선수를 이끌 베�테랑이 없어 역효과가 만만치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 런던 올림픽을 앞둔 흥명보 감독은 과거 세 차례 올림픽에서 경험한 와일드카드 활용 실패를 거울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흥 감독은 “우리가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보듯이 과거 올림픽에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부터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흥 감독은 “미리 선수를 정해두지 않겠다”며 ‘A-B-C 플랜’을 세우고 바로 대인을 내놓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올림픽 대표팀의 취약점은 ‘해결사 부재’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그런 배경에서 성인 대표팀에서 부동의 스트라이커로 활약하는 박주영(아스널)이나 부상에서 회복해 복귀하는 측면 공격수 이청용(불펜) 등이 와일드카드 후보로 거론된다.

그러나 흥 감독은 이를 선수가 올림픽이 열릴 때 최상의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와 전체 조직력에 미칠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

## 박지성 교체출전 맨유 토트넘 제압 3-1 완승

박지성(31)이 교체선수로 뛴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가 토퍼 넘 흑스퍼를 꺾고 선수 추격을 이어갔다.

맨유는 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화이트 하트 레인 경기장에서 열린 2011-2012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 토트넘과의 원정 경기에서 선제골을 끌어안은 뒤 2-1로 우니와 결승골을 포함해 2골 1도움을 기록한 애슬리 영의 활약을 앞세워 3-1로 이겼다.

이날 승리로 정규리그 3연승을 달린 맨유는 리그 7경기 무패(7승1무)의 상승세를 이

어갔고, 중간 순위에서도 20승4무3패(승점 64)로 선두 맨체스터 시티(승점 66)를 2점 차로 바짝 쫓았다.

박지성은 후반 34분 루이스 나니와 교체로 그라운드를 밟아 11분여를 뛰었다. 정규리그에서는 지난달 5일 첼시와의 24라운드 경기(3-3 무승부) 이후 처음 출전한 박지성이 공격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경기 막판 증원과 수비진에 활력을 불어넣어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맨유는 초반부터 강한 공세로 나선 토트넘

의 예봉에 애를 먹었다. 하지만 0-0으로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골잡이’ 루니가 포문을 열었다. 토퍼는 후반 들어 더 강하게 맨유 문전을 두드렸지만 주기골은 맨유 끝이었다.

후반 15분 오른편에서 스스로 된 공을 나니가 수비수와 킥오프 사이로 허리주자 골대 왼쪽에 있던 영이 이를 놓지 않고 오른발 발리슛으로 스코어를 2-0으로 벌렸다.

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후반 24분 과감한 중거리 슈팅으로 재차 토퍼를 골망을 흔들어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 /연합뉴스

## 호날두 리그 30호 골 팀 5-0 대승 선두 질주

스페인 프로축구 명문 레알 마드리드의 에이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올 시즌 정규리그 30호 골을 기록하며 팀의 대승과 선두 질주를 이끌었다.

호날두는 5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경기장에서 열린 2011-2012 시즌 스페인 프리미어리그에 애스파뇰과의 홈경기에서 전반 23분 선제 결승골을 터뜨려 팀의 5-0 대승에 초석을 놓았다.

득점왕 자리를 다투는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와의 격차는 두 골로 벌어졌다. /연합뉴스

## 이용대 남북·혼복 모두 준우승

### 독일 배드민턴 그랑프리골드

한국 남자 셜록의 ‘간판’ 이용대(삼성전기)가 2012 독일 배드민턴 그랑프리골드에서 금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이용대는 4일(한국시간) 독일 뮌하임 안데어루르에서 열린 대회 혼합복식 결승에서 하정은(대한교운이-세계랭킹 7위)과 호흡을 맞춰 토마스 레이보른-카밀라 리테르를 조(덴마크-세계랭킹 8위)에 맞섰지만 0-2(9-21 16-21)로 패했다.

이용대-하정은은 조는 1세트 초반 1-3 상황

에서 11연속 실점하며 일찌감치 무너졌고 1-14에서 내리 6점을 따냈지만 경기를 뒤집지 못했다.

2세트에서도 1-5로 뒤진 이용대-하정은은 조는 15-18까지 추격했지만 끝내 따라가지 못하고 16-21로 완패해 금메달을 내줬다.

이용대는 이어 정재성(삼성전기·세계랭킹 2위)과 함께 출전한 남자복식 결승에서도 흥웨이-선예(중국-세계랭킹 14위) 조에 1-2(19-21 21-18 19-21)로 져 대회 2연패 탈성을 놓쳤다. /연합뉴스

한국 축구연맹(한국축구협회)은 “경기 하동 구제봉 흥성봉 3월7일(수) 7시 45분 운동장에서 출발 8시 교육문화관, 8시10분 예술회관, 8시20분 동광주체육관, 8시30분 동광주체육관”이라고 밝혔다.

3월7일(수)

▲광주청년축구경기장 경기 하동 구제봉 흥성봉 3월7일(수) 7시 45분 운동장에서 출발 8시 교육문화관, 8시10분 예술회관, 8시20분 동광주체육관, 8시30분 동광주체육관

▲광주청년축구경기장 경기 하동 구제봉 흥성봉 3월7일(수) 7시 45분 운동장에서 출발 8시 교육문화관, 8시10분 예술회관, 8시20분 동광주체육관

▲광주청년축구경기장 경기 하동 구제봉 흥성봉 3월7일(수) 7시 45분 운동장에서 출발 8시 교육문화관, 8시10분 예술회관, 8시20분 동광주체육관

▲광주청년축구경기장 경기 하동 구제봉 흥성봉 3월7일(수) 7시 45분 운동장에서 출발 8시 교육문화관, 8시10분 예술회관, 8시20분 동광주체육관

▲광주청년축구경기장 경기 하동 구제봉 흥성봉 3월7일(수) 7시 45분 운동장에서 출발 8시 교육문화관, 8시10분 예술회관, 8시20분 동광주체육관

▲광주청년축구경기장 경기 하동 구제봉 흥성봉 3월7일(수) 7시 45분 운동장에서 출발 8시 교육문화관, 8시10분 예술회관, 8시20분 동광주체육관

▲광주청년축구경기장 경기 하동 구제봉 흥성봉 3월7일(수) 7시 45분 운동장에서 출발 8시 교육문화관, 8시10분 예술회관, 8시20분 동광주체육관

▲광주청년축구경기장 경기 하동 구제봉 흥성봉 3월7일(수) 7시 45분 운동장에서 출발 8시 교육문화관, 8시10분 예술회관, 8시20분 동광주체육관

▲광주청년축구경기장 경기 하동 구제봉 흥성봉 3월7일(수) 7시 45분 운동장에서 출발 8시 교육문화관, 8시10분 예술회관, 8시20분 동광주체육관

▲광주청년축구경기장 경기 하동 구제봉 흥성봉 3월7일(수) 7시 45분 운동장에서 출발 8시 교육문화관, 8시10분 예술회관, 8시20분 동광주체육관

▲광주청년축구경기장 경기 하동 구제봉 흥성봉 3월7일(수) 7시 45분 운동장에서 출발 8시 교육문화관, 8시10분 예술회관, 8시20분 동광주체육관

▲광주청년축구경기장 경기 하동 구제봉 흥성봉 3월7일(수) 7시 45분 운동장에서 출발 8시 교육문화관, 8시10분 예술회관, 8시20분 동광주체육관

▲광주청년축구경기장 경기 하동 구제봉 흥성봉 3월7일(수) 7시 45분 운동장에서 출발 8시 교육문화관, 8시10분 예술회관, 8시20분 동광주체육관

▲광주청년축구경기장 경기 하동 구제봉 흥성봉 3월7일(수) 7시 45분 운동장에서 출발 8시 교육문화관, 8시10분 예술회관, 8시20분 동광주체육관

▲광주청년축구경기장 경기 하동 구제봉 흥성봉 3월7일(수) 7시 45분 운동장에서 출발 8시 교육문화관, 8시10분 예술회관, 8시20분 동광주체육관

▲광주청년축구경기장 경기 하동 구제봉 흥성봉 3월7일(수) 7시 45분 운동장에서 출발 8시 교육문화관, 8시10분 예술회관, 8시20분 동광주체육관

▲광주청년축구경기장 경기 하동 구제봉 흥성봉 3월7일(수) 7시 45분 운동장에서 출발 8시 교육문화관, 8시10분 예술회관, 8시20분 동광주체육관

▲광주청년축구경기장 경기 하동 구제봉 흥성봉 3월7일(수) 7시 45분 운동장에서 출발 8시 교육문화관, 8시10분 예술회관, 8시20분 동광주체육관

▲광주청년축구경기장 경기 하동 구제봉 흥성봉 3월7일(수) 7시 45분 운동장에서 출발 8시 교육문화관, 8시10분 예술회관, 8시20분 동광주체육관

▲광주청년축구경기장 경기 하동 구제봉 흥성봉 3월7일(수) 7시 45분 운동장에서 출발 8시 교육문화관, 8시10분 예술회관, 8시20분 동광주체육관

▲광주청년축구경기장 경기 하동 구제봉 흥성봉 3월7일(수) 7시 45분 운동장에서 출발 8시 교육문화관, 8시10분 예술회관, 8시20분 동광주체육관

▲광주청년축구경기장 경기 하동 구제봉 흥성봉 3월7일(수) 7시 45분 운동장에서 출발 8시 교육문화관, 8시10분 예술회관, 8시20분 동광주체육관

▲광주청년축구경기장 경기 하동 구제봉 흥성봉 3월7일(수) 7시 45분 운동장에서 출발 8시 교육문화관, 8시10분 예술회관, 8시20분 동광주체육관

▲광주청년축구경기장 경기 하동 구제봉 흥성봉 3월7일(수) 7시 45분 운동장에서 출발 8시 교육문화관, 8